

교회의 공식예배인 전례¹⁾

신성근 신부

교회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완성하신 파스카 신비를 전례를 통하여 기념한다. 즉 교회는 전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선포한다. 이는 교우들이 세상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고 이 신비를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전례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²⁾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경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리고 전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하고 이를 드러낸다. 전례는 교우들을 새로운 공동체 생활로 이끌며, 모든 사람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전례에서 시작되고 전례로 완성된다. 인간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페 2,4)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 내적으로 서게 된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에페 6,18)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생활화하고 내면화한다.

I. 거룩하신 삼위의 행위인 전례

1. 전례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성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강복(降福)이다. 강복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생명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강복은 ‘말씀이요 선물’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드리는 ‘흠숭과 봉헌’을 의미한다.

태초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 강복하셨다. 심지어 죄를 지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노아와 그 외의 모든 생물에게도 강복하셨다. 마침내 하느님의 강복은 아브라함에 이르러 더욱 충만해졌다. 하느님의 강복을 받아들인 “믿

1) 이 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6~1130항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2) 전례(典禮)라는 말은 본래 ‘공적인 일’, ‘백성들의,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뜻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서 ‘전례’(Leitourgia)라는 단어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거행뿐 아니라 복음 선포와 사랑의 실천도 가리킨다. 이 모든 경우가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함을 뜻한다. 전례를 거행할 때 교회는 유일한 “제관”(Leitourgos)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시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예배), 예언자직(복음 선포), 왕직(사랑의 봉사)에 참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9-1070항 참조).

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하느님의 강복은 이사악의 탄생, 이집트 탈출, 약속된 땅을 주신 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일, 하느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는 것, 정확을 위한 귀양살이,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귀환 등 놀라운 구원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

마침내 하느님의 강복은 교회의 전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전달된다. 성부께서는 피조물을 위한 모든 강복과 구원의 원천이며 목적으로 인정되시고 흠송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채워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이로써 전례는 성부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믿는 이들의 신앙과 사랑의 응답이 된다.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과 일치하여 “성령 안에서” 흠송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2코린 9,15)에 대하여 성부께 찬미를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성부께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제물과 교회 자신과 신자들과 온 세상에 보내 주시도록 간청한다. 또한 교회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일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이 강복들이 “당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에페 1,6)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간청한다.

2.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행위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쪽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 성사들은 우리 사람이 감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표징 곧 말씀과 행위이다. 성사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와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이 가리키는 은총을 실제로 이루어 준다.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시고 실현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로마 6,10; 히브 7,27; 9,12)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고 계신다.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영속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3. 전례에서 성령과 교회

전례에서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의 스승이시며, ‘하느님의 걸작’ 곧 신약의 성사들을 만들어 내는 장인(匠人)이시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바라시는 일과 하시는 일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 신앙의 응답을 받으실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 협력을 통해서 전례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 된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믿는 회중에게는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현존하게 하고 실현하신다. 마침내 전례에서 모든 전례 행위, 특히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의 거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전례를 위해 모인 회중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 안에 하느님의 자녀들을 모으시어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모든 이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회중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하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전례 거행 자체로 받게 되는 다른 은총들과, 그에 따라 차후에 나타날 결과인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써, 전례를 거행하는 회중에게 먼저 구원 사건의 의미를 상기시키신다. 그러기에 성경은 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의 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을 위하여 동의와 투신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응답을 촉구한다. 성령께서는 또한 공동체에 신앙의 은총을 주시며,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 전례 모임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이루는 친교이며, 이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되도록 하신다. 전례 안에서 성령과 교회의 가장 긴밀한 협동이 실현된다. 친교의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한결같이 머무르시며, 따라서 교회야말로 하느님의 흠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신적 친교의 위대한 성사이다. 전례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하신 삼위와 이루는 친교, 형제와 이루는 친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II. 파스카 신비와 교회의 성사

1. 그리스도의 성사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다고 고백하며 가르친다.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과 공생활 동안 그분의 말씀과 행위는 이미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능력을 미리 보여 주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드러내는 신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성사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의 기초가 된다. 우리 구세주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성사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성사들은 언제나 살아 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성사들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걸작’이다.

2. 교회의 성사

“모든 진리 안으로”(요한 16,13)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보화를 점차 알아보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들을 맡은 충실한 관리자로서, 성경의 정경과 신앙 교리에 대하여 그랬듯이, 이 보화의 분배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거행하는 전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성사는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성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회의’ 성사이다. 성사가 ‘교회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 안에서 성령의 파견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사들은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친교의 신비를 인간들에게 보여 주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사이다.

3. 신앙의 성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루카 24,47) 선포되도록 사도들을 파견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 성사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동의인 신앙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기에, 세례를 주는 사명, 곧 성사들을 거행하는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다.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을 고백한다.

4. 구원의 성사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준다. 성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하다.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성부께서는 각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성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당신 성자의 교회가 바치는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 마치 불이 자기에게 닿는 모든 것을 태워 불로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며 가르친다. 성사들은 ‘성사 거행 그 자체로’(사효성) 효력을 가진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역시 가르친다. ‘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며, 각 성사에 고유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자와 같아지게 함으로써 치유하고 변화시키신다. 성사 생활의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외아들이신 구세주와 근본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5. 영원한 생명의 성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1코린 11,26),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1코린 15,28) 주님의 신비를 기념한다. 전례는 사도 시대부터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마라나 타”(Marana tha!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 1코린 16,22)라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완성을 향하여 인도되어 간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기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루카 22,15-16). 교회는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티토 2,13) 그리스도의 성사들 안에서 자신의 상속에 대한 보증을 받으며,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계속>